

2010 해외건설 · 플랜트의 날 행사 개최



▲ '2010 해외건설 플랜트의 날' 행사가 지난해 12월 7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됐다.

해외건설협회와 한국플랜트정보기술협회가 공동주최하고 국토해양부가 후원하는 '2010 해외건설 플랜트의 날' 행사가 지난해 12월 7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김황식 국무총리, 정종환 국토부장관,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강석대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등 유관기관 단체장 및 해외건설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재균 해외건설협회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해외건설은 현재까지 653억불의 공사를 수주했으며, 연말에는 700억불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연간수주 사상 최대실적 달성 등을 기록한 매우 의미있는 해"라며 "플랜트 등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해 정보네트워크,

금융지원, 인력양성 등의 부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행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올해 해외건설이 국내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에 기여한 49명의 해외건설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격려했다.

또한 해외건설의 수주경쟁력 제고, 기업의 진출지원, 국민들의 관심제고 등을 위한 세미나, 상담회, 채용박람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돼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해외건설 · 플랜트의 날'은 건설인의 화합과 사기진작, 자긍심 고취 등을 통해 해외 건설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제정돼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설비설계인 교류를 위한 2010 송년모임 개최




▲ 설비엔지니어링협회와 한국스파이렉스사코(주)는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삼성동 컨벤션 마벨러스에서 제25회 설비설계인의 교류를 위한 2010 송년모임을 개최했다.

설비엔지니어링협회(회장 이원구)와 한국스파이렉스사코(주)(대표 장 욱)는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삼성동 소재 컨벤션 마벨러스에서 제25회 설비설계인의 교류를 위한 2010 송년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송년모임에는 강석대 기계설비협의회 회장(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한 600여명의 설비설계인들이 참석하여 2011년의 희망찬 새해설계를 다짐했다.

이날 송년모임에서 이원구 설비엔지니어링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설비설계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덕분에 25회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언급한 다음 “설비엔지니어링협회는 설비협회와 함께 설비관련 법 추진을 비롯하여 △건축과의 공동도급 △설비감리 활성화 △미수금 최소화 대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설비설계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강석대 기계설비협의회 회장은 축사에서 “설계분야의 역할이 건설 완공품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므로 설비설계인 여러분은 기계설비 발전의 원동력이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실 핵심그룹”이라고 전제하며 “기계설비가 건설산업의 핵심분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설비설계인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석대 회장은 또 “오늘 송년모임을 계기로 설비설계인은 물론이고 기계설비인 전체가 단합하고 교류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강석대 기계설비협의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기계설비가 건설산업의 핵심분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설비설계인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가스공사 '건설분야 공정거래 선도' 선언



▲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12월 23일 '대·중소건설사 동반성장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주강수)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한 선언을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12월 23일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김용래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장을 비롯해 현대건설(주) 등 26개 원도급 건설회사와 63개 하도급건설회사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중소건설사 동반성장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은 △공정한 하도급 계약 실천을 통해 대·중소 건설사 동반성장 문화 조성에 선도적 역할 수행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거래를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 건전한 계약관행 정착 △중소건설사의 건설 기술력 확보에 공동 노력하며 자생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중소 건설사 동반성장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국가스공사는 그동안 국내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음성적이고 관행화 돼있는 하도급 불공정거래를 혁신적으로 타파하기 위해 '하도급관리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가스공사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저가 하도급계약을 사례별로 공지하고 원도급업체에 불공정 계약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또한 원청사의 자발적인 시정조치를 통해 하도급업체가 적정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현행 하도급 심사기준인 82% 하도급률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워 오히려 편법을 유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각 공사에 대해 저가하도급 실사를 거쳐 하도급률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마련하되, 일정비율 이하로 하도급률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가스공사 자체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공정한 거래를 유도할 방침이다.☺